

여름 제철과일값 ‘깡충’… 유통가, 할인전 ‘붐물’

수박·참외가격 전년비 14%·29% ↑
이마트, 여름먹거리 최대 40% 할인
롯데마트, ‘레드페스티벌’ 기획전
홈플러스, 오늘까지 ‘수박유니버스’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 제철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박, 참외 등 여름철 과일들이 출하량 감소 등으로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여름과일 할인 마케팅에 나섰다.

28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기준 광주지역 수박 1개 소매가격은 2만3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963원) 대비 13.57% 상승했다. 참외 10개 소매가격은 2만7043원으로 1년 전(2만927원) 보다 29.23% 비싸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



수박, 참외 등 여름 제철과일이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며 소비자 가격이 올랐다. 이에 지역 대형마트들은 본격적인 여름 맞이 여름과일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사진은 홈플러스 ‘수박유니버스’의 모습.

홈플러스 제공

고 제철과일을 최저가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5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여름 먹거리·용품 기획전’을 진행해 참외·수박 등 과일은 물론 소고기, 선봉기, 여름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한다.

여름 제철 과일도 최대 40% 저렴한 가

격에 구매할 수 있다. ‘성주 참외(4~8입/봉)’의 경우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000원 할인 판매하며, 당도선별·꿀처럼달콤한·유명산지·흑미수박 등 다양한 종류의 수박들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00원 할인한다.

또 여름 대표 보양식인 바다장어, 호주

산 와규부터 여름 냉방 가전과 여름 의류 할인전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마트와 슈퍼도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롯데 유통군 1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레드페스티벌’을 펼쳐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출하량 감소로 급값이 된 수박을 행사 기간 올해 최저가로 판매한다. 또 미국산 체리(450g/팩), 강원도 찰토마토(3kg/팩), 레드와인 50종 등 레드 컬러의 상품을 모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RED ITEM대전’도 진행한다.

나들이족을 겨냥한 맞춤형 간편상품으로 한우 1등급 구이용을 포함한 ‘바캉스 모듬팩’ 8종과 후라이드 ‘큰 치킨(1마리)’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필수식재료인 ‘행복상생란(30구/대란)’을 비롯해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의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행사도 마련한다.

홈플러스는 29일까지 ‘흑미 수박’, ‘애플 수박’ 등 다양한 이색 수박과 연관 상품들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수박 유니버스’를 진행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수박(전품목/통)’을 각 5000원 할인가에 제

공한다.

특히 ‘명품꿀당 12.5Brix 흑미 수박’은 최고 당도가 12.5Brix로 일반 수박 대비 당도가 약 14% 높다. 중소과를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6~7kg 사이즈로 보관과 섭취가 용이하다. 담양, 영암, 함안 등 우수 농가 20여 곳을 확보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했으며, 기온이 낮은 새벽에 수확해 신선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빙그레 따음바 수박(75mL X4입)·롯데 수박바(80mL X6입)’는 제품 구매 시 하나씩 더 제공한다.

한편 여름과일 가격은 다음달 안장세를 찾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박은 3월~4월 기상여건이 악화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달 하순 이후 추축하지만 충북 음성에서 출하가 시작되면 6월 이후 수박 가격은 이달 대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외는 재배면적이 줄면서 출하가 감소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는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작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조달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성료

혁신기업 12개사 등 참석

광주지방조달청은 28일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해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돕고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조달청별로 지역 내 조달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시설자재(창호, 내외부 마감재 등) 우수·혁신기업 12개사와 8개 수요기관 담당자 및 광주·전남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80

여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 제품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해 정부로부터 우수조달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으로 현장에서 참여 수요기관 및 건축사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사에 앞서 광주지방조달청은 광주·전남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역 조달제품의 홍보, 조달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열 광주조달청장은 “이번 수요기관·건축사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혁신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 첫 개최

업계 리더들과 비전·협력 논의

삼성전자가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그라비티 서울판교 호텔에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Samsung Health Partner Day)’를 개최했다. (사진)

삼성전자가 업계 리더들을 초청해 ‘헬스 파트너 데이’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헬스케어기업, 전문의료기관, 투자회사 등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파트너들과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을 공유하고, 건강관리 플랫폼 ‘삼성 헬스(Samsung Health)’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협업을 강화하고, 종합건강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헬스’는 수면·운동·식단·마음 건강 등, 모바일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비전 아래 사용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개발자들을 위한 ‘삼성 헬스 SDK(Software De-

velopment Kit)’ 소개 △헬스케어 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에 대한 패널 토론 △수면, 스포츠 테크, 의료AI, 혈당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사례가 소개되는 세션이 이어졌다.

또 올해 2월 ‘MWC 2024’에서 처음 전시된 ‘갤럭시 링(Galaxy Ring)’이 행사장에 전시돼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제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 박현수 팀장은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는 업계 리더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과 파트너사들의 전문성이 결합돼 디지털 헬스 생태계가 성장하고 고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해양에너지, 안전장비 선진화 투자 ‘활발’

가스누출탐지차량 3대 운영

해양에너지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안전장비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가스누출탐지 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해 총 3대를 운영 중이다. 이는 법적기준과 동종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형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가스누출탐지 차량은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 가스배관 시설물 2528km를 연 1회 순회하며 가스누설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매년 늘어나는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추가 누설점검을 진행해 혹시 모를 가스누출의 위험과 안전사고에 사전 대응할 계획이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가스 사고 없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학교’ 모집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가 ‘2024년 2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를 모집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선다.

29일부터 6월21일까지 모집하는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중학교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된다.

2016년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한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올해 1학기까지 2355개 국내 초·중등학교 및 해외 학교, 약 9만5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으며, 모빌리티 산업 발전 과정,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생 주도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교육계로부터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

미래모빌리티학교는 클린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 및 디바이스 기술을 소개하며, 모빌리티 업사이클링·자율주행 체험 키트(Kit) 등 교육 보조 재료를 제공해 성장세대들이 몰입감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한, 과학·환경 등 기존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 학교 소속 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교사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연수, 지도참고서 등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특성화 학교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선발 시 별도 심사를 진행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업은 중학생 대상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초등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미래모빌리티학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